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구 자 진*

목 차

- I. 머리말
- II. 시기별 연구현황
 - 1. 연구의 시작
 - 2. 연구의 본격화
 - 3. 연구주제의 다양화
- III. 맺음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1950년 북한에서 발굴 조사된 궁산 유적이 그 시발점이 된 이래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중요 집자리 유적의 발굴, 집자리(마을)에 관한 연구주제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의 시작(해방 이후~1974년), 연구의 본격화(1975~1990년), 연구주제의 다양화(1991년~)로 구분하였다. 해방 이전에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대부분 일본인 학자의 간단한 조사와 연구에 의존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 가까운 자료 수집에 불과하였다. 남한과 북한에서의 연구 성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유적 소개와 그에 따른 간단한 견해를 덧붙인 글이 주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는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논의되었다.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집자리 구조에 대한 검토와 움집의 복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유적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조사되면서 개별 집자리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단위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신석기시대 생계·주거방식에 대해서도 진전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연구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던 암사동, 송죽리, 상촌리 등의 조사 보고서가 근래 완간되었고, 그동안 조사 예가 많지 않았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되어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조사된 집자리 유적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의 생계경제 연구에 있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 주제어 ■

집자리, 마을, 움집복원, 생계주거방식, 신석기시대

I. 머리말

신석기시대 연구의 주된 핵심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있다. 신석기인들에게 의식주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 중에서 집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활동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을 것이다.

1910년대 일본인에 의해 조사·연구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 유적은 1930년대까지 불과 20여 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지표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1990년에 180여 개소, 현재는 9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과 북한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초기에는 북한지역에서 집자리를 비롯한 다수의 중요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고, 이후 1980년대부터는 남한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남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학술 지표조사를 통한 유적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의 증가양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첫째, 다양한 종류의 유구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조개더미, 집자리 등 대부분 한정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나, 최근에는 무덤, 야외 화덕시설, 저습지, 토기 가마, 움구덩(저장구덩), 화장시설, 토취장, 의례관련 유구(산상유구)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던 신석기시대 유적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경기지역과 경상도지역에 유적 조사가 집중되어 있던 것¹⁾이 최근에는 그동안 유적의 조사 예가 많지 않았던 충청도와 전라도를 비롯하여 제주도, 강원도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석기시대의 지역적 특징과 편년,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되는 양상은 신석기시대 유적 중에서도 집자리와 마을 유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충청지역을 비롯한 내륙지역과 서해안 및 섬 지역에서의 집자리 유적 조사는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뿐 아니라 당시 생계·주거방식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임상택 2006a; 구자진 2010; 소상영 2013a).

본고에서는 최근 조사 예가 증가하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에 대해 해방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고, 필자 나름대로의 연구

1) 이는 당시 섬이나 해안지역의 조개더미 유적에 대한 관심과 연구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석기시대 연구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 차례 검토된 바 있으나(안승모 1988, 2002; 李成周 1992; 한영희 1995; 임상택 2005; 신숙정 2008, 2011; 구자진 2011c; 이영덕 2015), 신석기시대 내에서의 특정 주제(집자리와 마을)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아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Ⅱ. 시기별 연구현황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1950년 북한에서 발굴 조사된 궁산 유적이 그 시발점이 된 이래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여기에서는 중요 집자리 유적의 발굴(또는 報告), 집자리(마을) 연구주제의 변화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의 시작(해방 이후~1974년), 연구의 본격화(1975~1990년), 연구주제의 다양화(1991년~)로 구분하였다. 해방 이전에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대부분 일본인 학자의 간단한 조사와 연구에 의존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 가까운 자료 수집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시기별 연구현황을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양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 조사 및 연구에 있어 시기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 연구의 시작

1) 남한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신석기시대 관련 유적이나 논문이 발표되지 않다가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자료 소개와 간단한 견해를 덧붙인 정도의 보고문이 몇 편 발표되었다²⁾. 서해와 남해안지역의 조개더미 유적과 암사동, 미사리 유적을 비롯한 충청내륙지역에서 지표 수습된 유물에 대한 자료 소개가 이루어 졌으며, 춘천의 교동 동굴 유적이 학계에 알려져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김원룡 1963). 이후 1960년대 중반에 일본을 통해 북한의 선사시대 연구 성과가 알려지게 되었고, 1967년에는 남한에서 최초로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암사동에서 발굴조사 되었다³⁾(金光洙 1968).

2) 이시기 남한에서 최초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보고는 1954년 국립박물관에서 조사한 서해 도서 지역의 조개더미 유적으로 덕적군도에서 대흑산도에 이르는 지역의 주요한 섬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國立博物館 1957).

3)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으나 유적 보고만 간헐

남한지역 최초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한 연구는 金正基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1968년 발표된 ‘韓國堅穴住居址考(一)’의 글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 집자리를 각 유적별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집자리의 입지, 평면형태, 규모, 바닥처리 방식, 내부시설물 등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결국 이 시기 남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로 인해 고고학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 신석기시대 유적의 확보와 빗살무늬토기를 통한 편년설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북한에서 고고학 조사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이다.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의 궁산 조개더미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이다. 이후 <표 1>에서와 같이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이 비교적 다수 발굴조사 되었는데, 남한지역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들 유적은 지금도 이 지역 집자리(마을)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편년연구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유적들이다.

표 1. 북한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⁴⁾

번호	유 적	조 사 연 도	집자리 수	참 고 문 헌
1	궁 산	1950년	5기	도유호 · 황기덕 1957
2	금탄리	1955년	5기	김용간 1964
3	지탑리	1957년	3기	도유호 · 황기덕 1961
4	신암리	1958~1974년	1기	리순진 1965; 김용간 · 리순진 1966
5	강상리	1959년	2기	변사성 · 안영준 1986
6	범의구석	1959~1961년	10기	황기덕 1975
7	토성리	1960~61년	5기	정찬영 1983
8	서포항	1960~64년	21기	김용간 · 서국태 1972
9	세죽리	1962 · 63년	1기	김정문 1964; 김영우 1964
10	석탄리	1964년	1기	리기련 1980
11	용연리	1972년	3기	강중광 1974

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당시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가 진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본고에서는 움집터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돌 칸 집터(數石住居址)와 동굴 유적은 제외하였다.

1958년에는 신석기시대 연구의 발단이 된 도유호의 “조선 원시문화의 연대 추정을 위한 시도”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궁산·지탑리·금탄리 등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뽕족밀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유적명을 따서 ‘궁산 문화’라 지칭하였다.

1972년에는 1960년대 초반 발굴 조사된 서포항 유적의 발굴성과를 보고하면서(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조개더미 유적을 5기의 문화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5기의 문화층은 조개더미의 층서관계에 의하여 파악된 것이 아닌 집자리들의 중복관계를 통해 설정된 것으로 공반관계로 인식한 ‘문화종태’ 혹은 ‘유물갯층새’도 마찬가지였다⁵⁾.

이처럼 다수의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석기시대 연구는 편년(토기) 및 연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집자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로 중복된 집자리의 선후관계를 통한 상대편년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신석기시대 연구는 빗살무늬토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편년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이 발굴조사 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일본인 학자가 아닌 우리 학자에 의한 연구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조사는 당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2. 연구의 본격화

1) 남한

1975년을 연구사 구분의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이때부터 남북한 모두 그동안 조사 보고된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이전시기부터 발굴 조사된 암사동 유적에 대한 연차발굴이 이루어졌으며, 1975년에는 암사동 유적에서 기둥과 보로 추정되는 탄화된 목재가 잘 남아있는 집자리가 조사되어 집자리의 상부구조 복원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80년대에 이르러 오산리 유적, 봉계리 유적, 임불리 유적, 송도 유적 등에서 집자리가 발굴조사 되었다. 소수의 유적이지만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지역별·시기별 집자리 연구에 밑바탕을 제공해 주었다.

5)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당시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선사시대를 체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남한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1975년~1990년)

번호	유 적	조 사 연 도	집자리 수	참 고 문 헌
1	암사동	1968년~1998년	30기	국립중앙박물관 1994~2008
2	오산리A·B	1981~1987년	11기	서울대학교박물관 1984, 1985, 1988
3	봉계리	1987~1988년	11기	동아대학교박물관 1989
4	임불리	1988년	4기	안춘배 1989
5	송도	1989·90년	2기	국립광주박물관 1989·90

이시기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로는 김홍식과 임영진의 연구가 있다. 김홍식은 ‘선사시대 살림집의 구조에 대한 연구(1977)’를 통해 선사시대 살림집의 발달과정을 민속학 자료를 중심으로, 도구의 발달 단계에 따라 사회적 생산 능력도 달라진다는 가정 하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를 복원하였다. 신석기인들은 도구의 발달로 큰 건축 부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되었고, 인공부재를 멀리서 채취 수송해서 집을 지었을 것이며, 이때 가장 합리적인 서까래의 경사각을 60° 로 보았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 살림집을 외기둥형, 외다리형, 몽고포모양, 쌍다리모양, 모임지붕으로 추정 복원하였다(〈그림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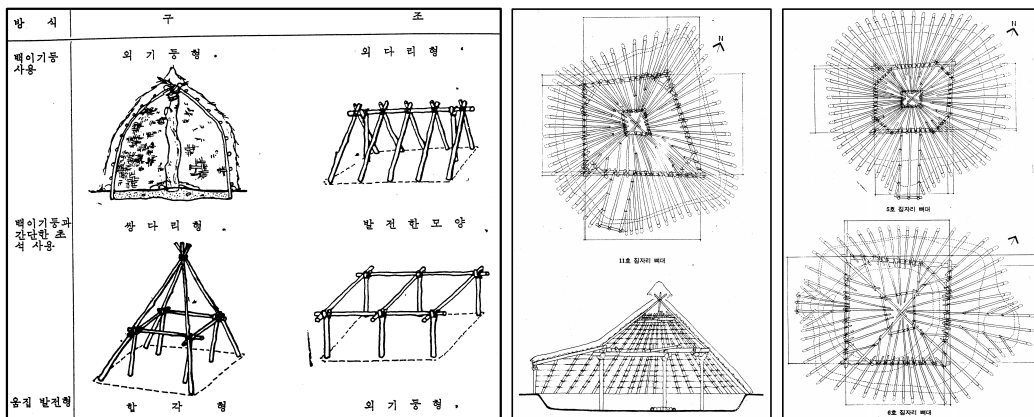


그림 1. 신석기시대 집자리 복원도(암사동) 및 모식도(김홍식 1977·1985, 필자 재편집)

또한 그는 ‘암사동 움집 복원고(1985)’를 통해 실제 유적에서 발굴 조사된 집자리를 대상으로 복원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암사동 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백이기둥 4개가 세워져서 뼈대를 이루는 쌍다리형이나 까치구멍집(한쪽은 모임지

붕이고 다른 쪽은 합각을 만든 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체의 재료는 버드나무와 오리나무, 너시래의 재료는 싸리나무, 이영은 역새(갈대), 묶는 끈의 재료는 짚을 사용하여 복원을 시도하였다(〈그림 1〉참조). 이는 실제 조사된 집자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움집 복원 실험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영진은 ‘움집의 분류와 변천(1985)’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당시까지 발굴 조사된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움집을 평면형태(1차), 깊이(2차), 지붕모양 및 기둥배치(3차)에 따라 분류한 후, ‘원(타원, 사각)추 무주, 원추(타원, 사각) 1주, 원추(타원, 사각) 4주, 장방맞배 1열, 장방맞배 3열, 장방맞배 2열’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분류를 통해 집자리의 평면형태, 지붕형태, 기둥배치, 움 깊이 등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발전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유역, 기타 지역의 주요 큰 하천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집자리를 상대편년하고 지역별 시기적인 변화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는 고고학 연구자에 의해 최초로 시도된 선사시대 움집의 분류 및 복원연구로써 연구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넓은 지역의 오랜 시간 폭을 지닌 집자리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지역적)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남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앞 시기의 집자리 발굴성과를 통한 집자리 상부구조(특히 지붕)를 건축학·민속학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복원하고, 집자리의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발전 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남한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2) 북한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은 전시기에 비해 간헐적으로 조사보고 되었다(〈표 3〉 참조). 마산리 유적과 소정리 유적에서는 집자리가 10여기 이상이 조사되어 신석기시대 집자리를 비롯한 마을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유적과 집자리에 대한 보고가 너무 소략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남경유적은 그동안 서북한지역의 편년연구에 근간을 이루던 공산문화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편년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⁶⁾.

6) 그러나 북한의 당시 연구논문은 뚜렷한 문제제기가 없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증과정이 거의 생략된 채 자료와 이론의 경계가 없이 사실을 연쇄적으로 서술해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성주 1992).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에 있어 가장 큰 획을 긋는 논문 중 하나가 이 시기에 북한에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김용남·김용간·황기덕 1975)’인데,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집자리 자료들을 기존의 편년에 맞추어 그 변천과정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발굴된 집자리의 평면형태와 기둥 배치 등을 통하여 추정되는 집의 짜임새, 즉 가옥 복원형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기에 해당하는 집자리는 네모 집에 서까래를 움 안에 세운 양면지붕인 지탑리 제1호 집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깔지붕’이라고 보았다. ‘고깔지붕’이란 외형이 원추형이고 서까래들을 경사지게 세워서 위는 가운데 모이게 하고 아래는 움 밖 땅바닥에 박아 세운 형태를 말하며, 그래서 움 안의 기둥자리들은 모두 서까래를 받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형태에서 방형의 움에 벽체가 형성되어 지붕이 보다 높아지고 서까래가 움 밖으로 나오는 양면 경사진 지붕으로 변화해간다고 본 것이다.

표 3. 북한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1975년~1990년)

번호	유 적	조 사 연 도	집자리 수	참 고 문 헌
1	남경	1979년~1981년	5기	김용간·석광중 1984
2	장촌	1982년	2기	석광중·허순산 1987
3	마산리	1987~1988년	12기	김동일·서국태·지화산·김종혁 2002
4	소정리	1989년	17기	변사성 1992; 고영남·전일권 1998; 전일권 1999

이밖에도 황기덕은 ‘살림집의 구조형식과 건축기술(1984)’에서 살림집을 신석기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대표적인 유적을 통해 집자리 복원을 시도하였고, 구조형식의 변천과정을 통해 건축기술이 발전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북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이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게 된다. 이는 신석기시대뿐만 아니라 고고학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당시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주제의 다양화

1) 남한

앞 시기까지 남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고고학 자료의 한계와 이에 따른 연구자의 관심부족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은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인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전국토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화재조사의 증가와 1999년 강화된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의 이 시기는 다시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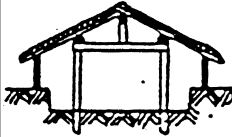
① 전반(1991~2000년)

남한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신석기시대 집자리 중 연구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유적들이 조사된 시기이다. 하지만 각 유적에 대한 개별 학술토론 및 소개만 이루어졌을 뿐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김천 송죽리 유적, 청원 쌍청리 유적, 양양 가평리 유적, 보령 관창리 유적, 양양 지경리 유적, 진주 상촌리 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 옥천 대천리 유적, 연천 삼거리 유적, 부산 동삼동 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은 지역적으로도 그 동안 조사 예가 적었던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내륙지역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각 지역 및 시기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유적이며, 신석기시대 생업경제 및 빗살무늬토기의 변화양상(편년)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집자리 연구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언급되었던 암사동 유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정성희 1994)가 이루어졌으며, 집자리 내부공간과 거주 인원수에 관한 연구(김희찬 1995a)도 시도되었다. 또한 개별 유적을 주변지역과 비교검토하거나 생활영역을 추정한 연구(고동순 2000, 이동주 2000)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 시기에 비해 연구주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건축학 전공자들에 의해서도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는데, 조형래는 ‘수혈주거의 벽과 벽구에 관한 연구(1996)’를 통해 선사시대 집자리의 벽체시설을 고고학적인 현상과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유형별로 나누어 구조적 기능을 용도와 집을 짓는 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는 수혈주거에서 지상주거로의 발전과정에서 반수혈주거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주거지상 벽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때 주거 외부로부터 빗물이 새거나 위험물로부터 생활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장벽의 높이를 좀 더 높이는 작업을 했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수혈주거 내부로부터 벽의 개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보다 넓은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하로 주거의 용적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지상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본격적인 벽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그림 2〉참조).

區分	竪穴住居	不完全半竪穴住居	半竪穴住居	
			耐力系統	非耐力系統
단편 모식도				
공간 사용	地下위주의 空間使用	地上으로 空間領域 擴張	地上을 등장 적극적인 지상공간 이용 주거공간의 폭은 狹小.	住居空間의 擴張 竪穴 외부공간의 사용 도 가능
가타	깊은 竪穴住居	外觀上 竪穴住居 竪穴의 깊이가 얕아짐	外周壁을 통한 換氣가능.	壁材料의 다양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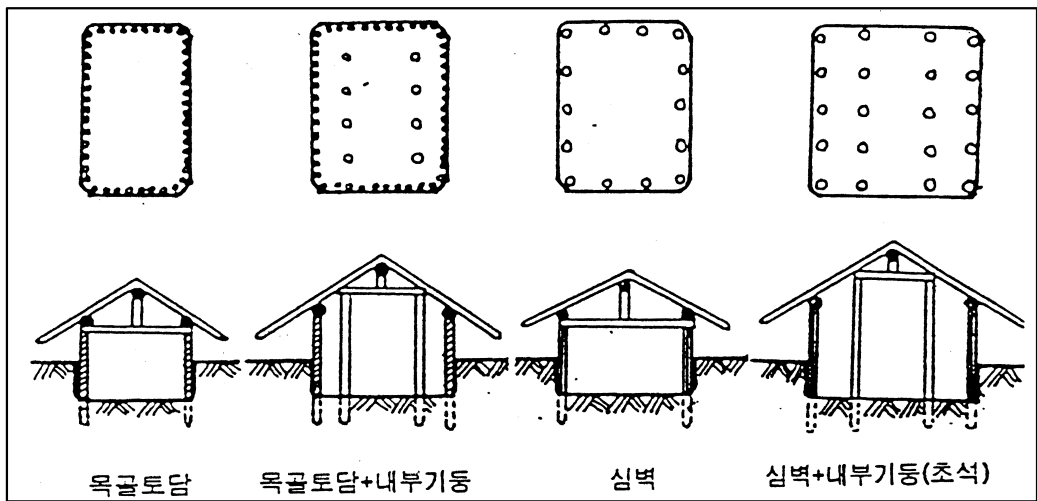


그림 2. 움집에서 벽의 발생과 기둥배치 유형(趙亨徠 1996)

표 4. 남한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1991년~2000년)

번호	유 적	조 사 연 도	집자리 수	참 고 문 헌
1	미사리	1991년	1기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2	송죽리	1991~1993년	10기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06
3	쌍청리	1993년	1기	국립청주박물관 1993
4	가도	1993·94년	4기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5	노래섬	1994~1997년	1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2
6	가평리	1994~1996년	2기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7	관창리	1995년	4기	충남대학교박물관 1995a
8	장암	1995년	2기	충남대학교박물관 2008
9	지경리	1995~1996년	10기	강릉대학교박물관 2002
10	목도	1996년	2기	국립진주박물관 1999
11	상촌리	1996~1997년	27기	동의대학교박물관 2002; 이동주 2000
12	소남리	1997~1998년	2기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1998
13	봉명동	1998~1999년	2기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14	느들	1998년	1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15	문암리	1998·2002년	5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16	운서동	1998년·2008년	70여기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a, 2008b
17	서변동	1998~2000년	1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18	대천리	1999년	1기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2003
19	삼거리	1999년	6기	경기도박물관 2002
20	동삼동	1999년	3기	부산박물관 2007
21	학암리	1999년	1기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22	오이도 뒷·가운데살막	1999년(가운데살막) 2000년(뒷살막)	4기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2002
23	관평동	2000년	1기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24	진그늘	2000~2001년	3기	조선대학교박물관 2005
25	갈머리	2000~2001년	3기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이외에도 건축학 전공자인 김도경·주남철은 ‘新石器時代 움집의 構造와 變遷에 관한 研究(1998)’를 통해 당시까지 발굴된 신석기시대 집자리를 토대로 평면과 기둥배치 형식을 구분한 후, 당시 사용되었던 도구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조를 추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크게 지붕의 구조에 따라 뿔형(모임지붕)과 용마루형(맞배지붕, 우진각지붕)으로 분류하여 평면형태와 기둥구멍의 배치에 따라 세분하였다. 이는 신석기시대 집자리를 건축학자의 시각에서 분석 및 해석한 것으로 주목되는데, 신석기시대 움집을 무주식-뿔형에서 보강기둥식-뿔형, 그리고 기둥식-뿔형의 변천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집자리의 평면형태와 기둥구멍 배치에 따른 지붕구조의 추정복원은 건축학측면에서 다루어져 고고학 연구자들에게 부족했던 움집의 구조(가구방식)에 대한 연구 성과는 주목되나,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지역성과 시기구분 및 출토 유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료의 인용과 해석에 비전공자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② 후반(2001년~현재)

이 시기는 전반기에 발굴 조사된 유적들의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와 관련된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어 다양한 주제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지역권별로 집자리의 구조와 변화양상을 검토한 글(송은숙 2003; 지현병 2003; 구자진 2005, 2006a, 2006b, 2007a, 2007b, 2008a, 2009b)이 발표되었으며,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동굴 및 바위그늘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신숙정 2003)도 이루어졌다. 이후 집자리(마을) 연구는 개별 집자리에서 마을단위의 연구로 진전되는데, 이상균(2003)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은 環狀과 弧狀形態이며 중앙에 광장이 있는 구조로 판단하였다. 이는 일본 죠평시대 마을 유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집자리 밀집지역에는 공공장소가 반드시 존재하고 저장시설이나 토기제작장은 집자리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집자리 내에서 가족단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앙광장을 둘러싸는 배치형태를 통해 단합하는 사회적 규범을 보이고, 영속적으로 광장 공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마을 내에서도 한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함부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집자리의 중복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구조 및 특징에 대한 해석은 일본 죠평시대 연구 성과를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유적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 마을의 형태가 環狀과 弧狀形態이며 중앙에 광장이 있고, 집자리 밀집지역에는 공공장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가정⁷⁾은 현재까지 드러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을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집

7) 이러한 견해는 아직 일반화하기 어렵고, 배치상태의 파악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임상택 2006a).

자리 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집자리 내부나 주변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임상택(2006a, 2006b)은 마을구조의 변화상을 신석기시대 사회변화상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마을구조와 지역별 집자리의 분화현상, 규모 및 입지 변화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집자리 변화를 시기적으로 분류하고 전개과정을 마을의 구조변동과 연계하여 그 원인을 밝혀보려 하였다.

또한 개별 집자리의 규모와 관련하여 마을구조의 변화는 늦은 시기로 가면서 소형 집자리 몇 기로 이루어진 마을과 소형 집자리와 대형 집자리의 결합, 대형 집자리의 단독 존재라는 세 부류로 마을구조가 분화되어 간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이 시기의 특징을 마을규모의 축소경향으로 보았는데, 이는 금강유역에 보이는 대형 장방형 집자리의 단독 존재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마을규모의 축소현상은 늦은 시기 유적의 내륙과 해안 확산현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바, 유적확산과 마을규모 축소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늦은 시기의 유적확산은 초기농경의 도입 및 1차 거점적 확산 이후 나타난 현상(2차 확산)으로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농경기술의 한계와 이에 따른 마을 이동 비용의 증가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것이 마을규모의 축소라는 것이다. 그는 결국 변동과정을 초기농경 도입과 집단 안정화(Ⅰ기), 취락규모의 증가와 집단의 확산(Ⅱ기), 취락구조의 변동과 소규모 취락의 확산(Ⅲ기), 정주취락의 해체(Ⅳ기)로 보았다.

배성혁(2006·2007)은 김천 송죽리 유적을 모델로 자연환경을 고려한 입지선택으로부터 집자리나 토기가마, 석기제작장 등 개별유구의 공간배치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획에 따라 마을이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송죽리 유적에 반영된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토기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 배치한 것으로서 토기생산공간은 화재로부터 주거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공간과 분리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았다. 주거공간은 광장을 중심으로 중심부에는 공동작업시설인 석기제작장과 대형 공용가옥을 배치하고, 개별 집자리들의 일렬배치관계나 주거공간의 확장구조, 생활전용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야외저장창고·취사전용 야외 화덕시설의 분리배치구조 등의 특징이 관찰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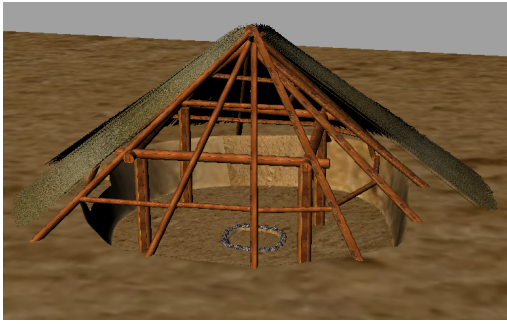
이후 집자리 유적을 통해 생계·주거방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는 한 층 더 진전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김은영 2006; 임상택 2006a; 구자진 2008b, 2009a, 2009c). 이외에도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의 꾸준한 증가를 통해 지역별 집자리의 구조(복원) 및 특징에 대한 분석도 지속적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진희 2008; 이승윤 2008a, 2008b).

2010년 이후에는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마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임상택, 구자진, 유지인, 소상영, 신동민의 논고가 있다.

임상택(2010)은 중부서해안지역의 마을유적 증가로 인해 본인의 기존 편년을 바탕으로 중부서해안지역의 새로운 상대편년안을 제시하였고, 이 지역 신석기시대 마을구조의 특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는 이 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은 전기에서 중기까지는 대규모의 열상배치를 이루다가 후기에 들어서면 2~3기의 집자리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여 구릉상에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이밖에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를 권역별 입지와 구조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여 암사동식, 오산리식, 운서동식, 신길동식, 대천리식, 송죽리식, 범의구석식의 집자리 유형을 설정하고, 이들 집자리의 복원을 시도한 연구(구자진 2011a, 2011b)도 있다(〈그림 3, 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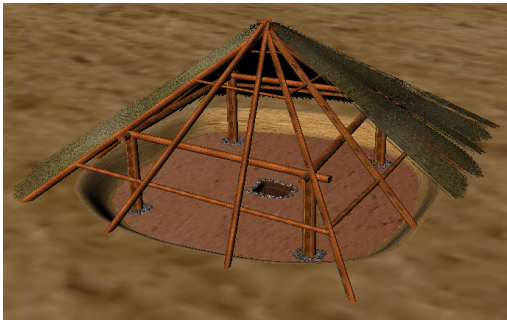
유지인(2012)은 기존의 신석기시대 마을연구가 동시기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집자리 수의 많고 적음만으로 정주 기간을 해석한 것을 비판하고, 먼저 개별 마을의 동시기성을 집자리의 군집양상, 반복사용 여부, 방사상탄소연대 측정값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석기의 조성양상과 다양도, 집자리와 기타 유구와의 조합 관계, 집자리의 반복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중기보다 후기가 석기조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다 장기적인 정주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석기조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점유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마을의 구조 변화와 연관시켜 이해하기 어려우며, 유적별 석기의 다양성을 장기점유의 주요 척도로 삼기에는 실제 도구 제작 및 사용의 수량과 빈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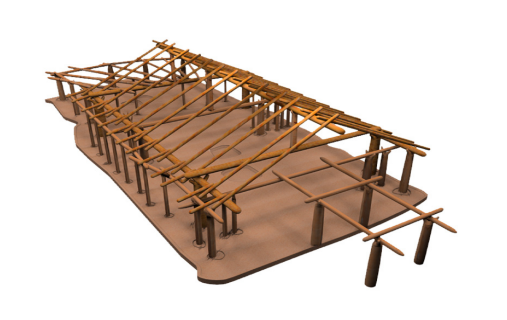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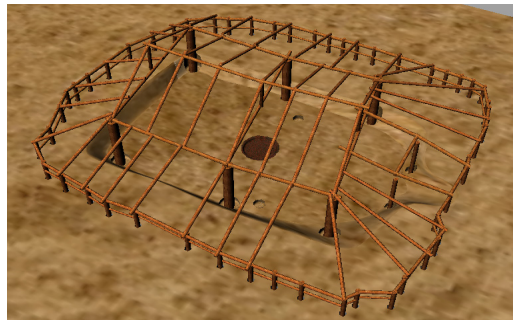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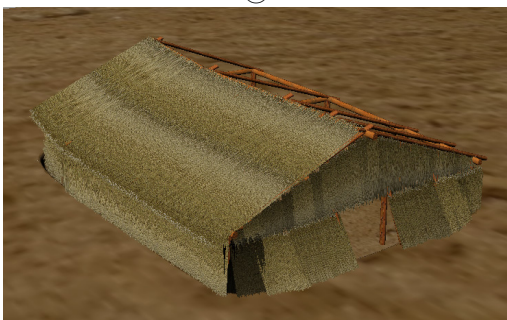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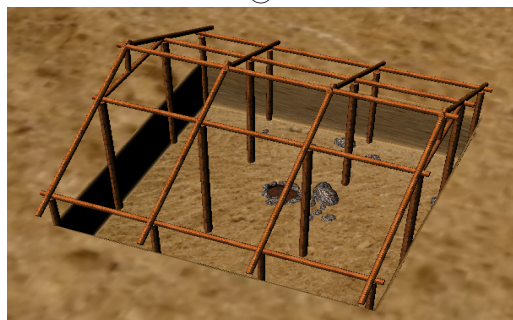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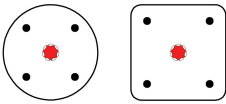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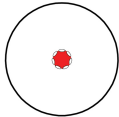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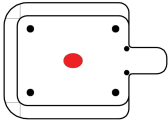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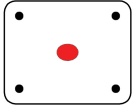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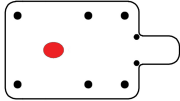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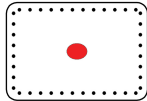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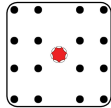


⑧

그림 3. 신석기시대 집자리 복원도(구자진 2011b)

(① 암사동, ② 궁산, ③ 오산리, ④ 운서동, ⑤ 대천리, ⑥ 용동리, ⑦ 송죽리, ⑧ 범의구석)

표 5. 신석기시대 형식별 집자리 모식도(구자진 2011a)

집자리유형	평면 모식도	입 지	시기 (분기)	대표 유적
암사동식		강변 충적대지	I 기	암사동, 삼거리 유적
오산리식		해안 사구지대	I 기	오산리, 문암리 유적
운서동식		구릉지역	I 기	운서동 유적
신길동식		구릉지역	II 기	신길동, 능곡동, 농서리 성내리, 기지리 유적
대천리식		구릉지역	II 기	대천리, 관평동, 신관동 영하리, 용동리 유적
송죽리식		강변 충적대지	II 기	송죽리, 상촌리 유적
범의구석식		구릉 말단부	III 기	범의구석, 후와(상촌) 유적

신동민(2013) 또한 마을 내 집자리간의 동시기성 문제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구조 분석에 있어서는 집자리의 동시기성(동시간성)의 검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 및 집자리 형태 및 내부시설, 집자리 조성방식과 배치양상 등을 검토하였다. 결국 I 기(전기)에는 도서지역 과 내륙지역에 각각 입지를 달리하여 10~20기 정도의 대규모 마을이 등장하고, II 기

(중기)는 내륙 충적대지에는 전 시기의 마을이 유지되나 후기에 들어 와해되고 소규모 마을만이 잔존한다고 보았다. 반면, 도서지역은 계속해서 대규모 마을이 조성되고 있으며, Ⅲ기에 들어서면 도서지역에 대규모 마을이 유지되지만 전 시기와는 다른 마을 구조와 다양한 형태의 집자리가 확인되는데, 이는 취락 구조상에 있어서 1기 단독 또는 2~3기의 소군집을 포괄하는 대군집이 산발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판단하였다.

최근에는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마을의 구조와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구자진 2013b)도 이루어졌는데, 중부서해안지역의 마을구조는 2~3기의 집자리가 하나의 소군집, 즉 중심가구와 주변가구가 결합된 가구군을 형성한 후, 이러한 가구군이 모여 마을을 이룬다고 본 것이다. 결국 가구군을 중심으로 마을이 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중부서해안지역 중 경기해안지역은 10개 내외의 가구군, 충남북부지역에서는 1~2개 내외의 가구군으로 마을이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경기해안지역 10개 내외의 가구군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마을이 충남북부지역에 이르면 1~2개의 가구군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마을로 마을의 운용방식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며, 두 지역의 중간지역에 해당하는 농서리 유적은 마을규모 및 출토유물에 있어 점이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았다(구자진 2012). 즉 대규모 마을의 기초단위에 해당하는 가구군이 독립적인 분산에 의해 충남북부지역의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이다. 충청내륙지역의 대천리식 집자리는 중부서해안지역의 소규모 마을과 규모면에서는 유사하나 대형 집자리 1기의 단독 운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중부서해안지역의 중심가구와 주변가구로 운영되던 기초단위가 결합하여 새로운 패턴의 가구운용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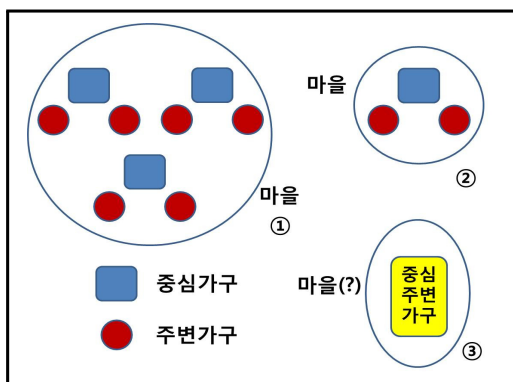


그림 4.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운용 모식도 (구자진 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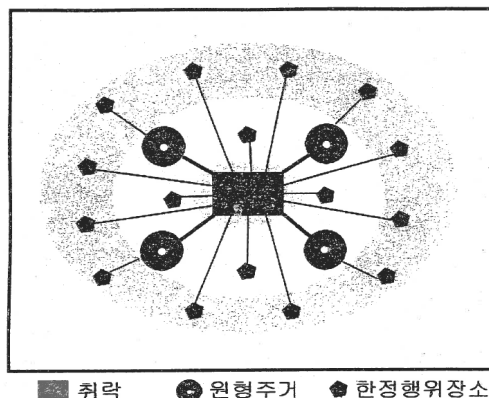


그림 5. 신석기시대 중기 마을운용방식 개념도(임상택 2007)

또한 대천리식 집자리의 발굴조사 증가에 따라 이들 집자리를 재검토하여 대천리식 집자리의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구자진 2013a)도 이루어졌다. 대천리식 집자리와 관련된 유적의 집자리 분석을 통해 대천리식 집자리는 운서동식 집자리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며, 대규모 마을을 이루던 것이 중부서해안지역에서 대천리식 집자리의 특징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일부 유적에서는 신길동식 집자리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자리는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평면형태가 변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차령산맥 남쪽의 충청내륙지역에서는 전형적인 대천리식 집자리가 자리를 잡게 되며, 규모와 내부공간분할은 좀 더 정형화되어 간다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대천리식 집자리의 특징 중 하나인 단독가옥의 형태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대천리식 집자리의 성립과정 모식도(구자진 2013a)

소상영(2013)은 개별 집자리의 구조와 마을의 공간 배치 및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기별 마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근 다수의 결과가 축적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3,600 cal BC를 기준으로 이전 시기를 중서부 I 기, 이후 시기를 중서부 II 기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토기 문양의 변화와 함께 지역별로 세부적인 시기 구분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진주 평거동 유적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남부내륙지역의 취락에 대한 재검토(최종혁 2013)가 이루어졌는데, 마을구조는 주거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간, 토기가마로 대표되는 제작 또는 생산공간, 석축유구로 대표되는 의례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마을의 공간구성에 있어 광장이나 공적인 시설 등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집자리 배치에 있어서도 마을 내부의 규제나 규칙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 성과가 학위논문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홍성수 2012; 김재은 2013; 김재선 2014). 김재은과 홍성수는 2000년대 이후 조사된 중서부지역의 마을 유적을 대상으로 집자리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였으며, 김재선은 중부서해안지역의 운서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 영종도지역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을 시기별 마을 구조의 변화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주목된다.

2) 북한

북한에서의 이 시기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와 유적 조사는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연구주제와 유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 연구는 기존의 편년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에 의해 남한의 연구 성과(리주현 2000, 2003)를 소개하거나 단편적인 유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신석기시대 대형 집자리에 대한 연구이다. 집자리 면적이 30m² 이상인 대형 집자리 가운데는 집단의 공동목적에 이용되던 공동건물이 주류를 이룬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집자리 가운데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형식을 가진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았다.

표 6. 북한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1991년~현재)

번호	유 적	조 사 연 도	집자리 수	참 고 문 헌
1	반굴리	1993년	1기	서국태 · 지화산 1994, 1995
2	남양리	1994~1998년	2기	서국태 · 지화산 2002
3	룡덕리	1994년	1기	김동일 · 김광철 2001
4	표대	2000년대	15여기	학계소식 2003, 리명철 2013
5	리천리	2000년대	5여기	지화산 · 리명철 200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은 5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최근 조사된 평양지역의 표대 유적과 리천리 유적은 신석기시대 중~후기 단계의 집자리(마을) 유적으로 이 시기 남한에서 확인되고 있는 중기 이후단계의 집자리 양상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보고된 유적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비교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시기 북한에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는 남한과 비교하여 침체기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한때 연구교류의 장이 마련되는듯 하였으나 남북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과 연구 논문을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는 6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에서의 연구 성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유적 소개와 그에 따른 간단한 견해를 덧붙인 글이 주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는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논의되었다.

본고에서 다룬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집자리 구조에 대한 검토와 움집의 복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유적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이 조사되면서 개별 집자리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을단위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신석기시대 생계·주거방식에 대해서도 진전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연구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던 유적(암사동, 송죽리, 상촌리 등)의 보고서가 근래 완간되었고, 그동안 조사 예가 많지 않았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굴 조사되어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조사된 집자리 유적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의 생계경제 연구에 있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에 있어 앞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집자리(마을)의 입지와 관련하여 최근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마을 단위의 유적이 확인되는 경우, 주변 환경을 비롯한 입지의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지형분석, GIS 등)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주거방식 및 고환경복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집자리(마을)의 복원과 마을 단위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발굴 조사된 대규모 마을 유적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움집 복원의 경우에는 건축학 전공자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복원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유적의 지역적 편중과 관련된 문제로 호남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혹은 마을 유적의 부존여부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조사된 중부내륙지역의 전기단계에 해당하는 파주 대능리 대규모 마을 유적을 통해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형성과 구조 변동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 질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세호, 2015, 「임진강유역의 신석기시대 취락유적」, 『빛살무늬-6000년 경기도자의 첫걸음』,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고동순, 2000, 「양양 지경리 유적의 생활영역」, 『지경리 선사문화에 대한 학술강연회』, 양양문화원.
- 고영남·전일권, 1998, 「소정리유적 3지점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8-3.
- 구자진, 2005, 「옥천 대천리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47.
- 구자진, 2006a, 「중부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 『송실사학』 19.
- 구자진, 2006b,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1.
- 구자진, 2007a,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지역권설정과 변화양상」, 『한국신석기연구』 13.
- 구자진, 2007b,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 『강원고고학보』 10.
- 구자진, 2008a, 「신석기시대 대천리식 집자리의 재검토」, 『호서고고학』 18.
- 구자진, 2008b, 「중부 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생계·주거방식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60.
- 구자진, 2009a,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구조와 생계방식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63.
- 구자진, 2009b, 「아산만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시공적위치」, 『문화재』 42-3호.
- 구자진, 2009c, 「서·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개터미 유적의 집자리 의미」, 『한국신석기연구』 18.
- 구자진, 2010, 『한국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자진, 2011a,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유형설정 검토」, 『송실사학』 26.
- 구자진, 2011b, 「신석기시대 움집의 복원과 의미」, 『야외고고학』 10.
- 구자진, 2011c,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의 연구현황과 과제」, 『고고학 발굴과 연구 50년의 성찰』, 심당 조유전 박사 고회기념 논총.
- 구자진, 2012, 「중부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친연성 검토」,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
- 구자진, 2013a, 「신석기시대 대천리식 집자리의 성립과정에 대한 소고」, 『야외고고학』 18.
- 구자진, 2013b,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의 운용방식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26.
- 구자진, 2015, 「중부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빛살무늬-6000년 경기도자의 첫 걸음』,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구자진·배성혁, 2009, 『한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신석기학회·한강문화재연구원.
- 金光洙, 1968, 「암사동 즐문토기 유적 발굴 개보」, 『고고미술』 9-2.
- 김도경, 2000, 「한국 고대 목조건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경·주남철, 1998, 「新石器時代 움집의 構造와 變遷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4권 10호.

- 김동일·김광철, 2001, 「중산군 룡덕리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01-3.
-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 김용간·석광중,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남, 1983, 「중산문화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8.
- 金勇男·金用玕·黃基德, 1975,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원용, 1963, 「춘천 교동 혈거 유적과 유물」, 『역사학보』 20.
- 김은영, 2006, 「신석기시대 연평도지역의 생계·주거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4, 「신석기시대 중기 호서지역 수렵채집 집단의 이동양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85.
- 김장석·양성혁, 2001,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 45.
- 김재선, 2014, 「중부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주거와 취락구조의 변화」,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2013, 「신석기시대 집터 연구-경인지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正基, 1968, 「韓國堅穴住居址考(一)」, 『考古學』 1輯.
- 金正基, 1976, 「堅穴住居와 半堅穴住居」, 『張起仁先生回甲記念論文集』.
- 金正基, 1983, 「住居址發掘에 있어서의 問題點」, 『韓國史論』 12.
- 김진희, 2008, 「한반도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관한 연구-중서부지역 주거복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鴻植, 1977, 「先史時代 살림집의 構造에 대한 연구(假設)」, 『文化財』 11.
- 金鴻植, 1985, 「岩寺洞 움집 復元 考」, 『文化財』 18.
- 김희찬, 1995a, 「신석기시대 주거내 공간활용과 주거 인원수에 관한 연구」, 『경희사학』 19.
- 김희찬, 1995b,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유호, 1958, 「조선 원시 문화의 연대 추정을 위한 시도」, 『문화유산』 3호.
- 리주현, 2000, 「남부조선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00-1.
- 리주현, 2003, 「암사동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03-2.
- 박철, 2008, 「표대유적 제7지점에서 발굴된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08-2호.
- 배성혁, 2006, 「김천 송죽리 신석기시대의 취락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성혁, 2007, 「신석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 『한국신석기연구』 13.
- 변사성, 1992, 「소정리유적 1지점 신석기시대 집자리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92-3.
- 변사성·고영남, 1989, 「마산리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89-4.
-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소상영, 2013a,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상영, 2013b,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취락의 점유 양상」, 『고고학』 12-3호.
- 송은숙, 2002, 「한국 빗살무늬토기 문화의 확산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은숙, 2003, 「암사동선사주거지의 특성」, 『동아시아 속의 암사동 선사문화의 위치』, 제5차 암

사동 선사문화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신동민, 2013,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구조 검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정, 2003, 「우리나라 신석기·청동기시대의 동굴 및 바위그늘 유적 연구」, 『우리나라 선사 시대의 동굴유적과 문화』, 연세대학교박물관.
- 신숙정, 2007, 「환동해지역 신석기시대의 문화와 사회교류」, 『환동해지역 선사시대 사회집단의 형성과 문화교류』, 한국상고사학회.
- 신숙정, 2008,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신석기연구』 15.
- 신숙정, 2011, 「신석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 안승모, 1988,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보』 21.
- 안승모, 2002, 「신석기시대」, 『한국의 학술연구-고고학(남한 선사시대)』, 대한민국학술원.
- 안승모, 2006,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출현의 상관관계」, 『한국신석기연구』 11.
- 유지인, 2012,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해안지역 취락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주, 2000, 「남강유역의 신석기문화와 일본 열도」,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이상균, 2003, 「한반도 신석기시대 주거의 변천과 구조적 양상」, 『고문화』 61.
- 李成周, 1992, 「신석기시대」, 『韓國 先史考古學史-연구현황과 전망』, 까치.
- 이수진, 2010, 「동해안지역의 주거와 취락」,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2010년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삼한문화재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 이승윤, 2008a, 「중서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일 연구」, 『고고학』 7-2.
- 이승윤, 2008b, 「우리나라 중동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일 연구」, 『과기고고연구』 14.
- 이영덕, 2015, 「신석기시대 연구사-도구와 생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고학사 I』, 한국상고사학회.
- 임상택, 2005, 「신석기시대의 최근 조사 성과와 연구 흐름」, 『한국 고고학의 최근성과와 과제』, 한국선사고고학회.
- 임상택, 2006a,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상택, 2006b, 「빗살무늬토기문화 취락 구조 변동 연구」, 『호남고고학보』 23.
- 임상택, 2007, 「한반도 신석기시대 취락의 운용방식의 일단」, 『한일 신석기시대의 주거와 집락』, 제7회 한일신석기연구회 발표자료집.
- 임상택, 2010, 「신석기시대 서해중부지역 상대편년과 취락구조의 특징」, 『한국상고사학보』 70.
- 林永珍, 1985, 「움집의 分類와 變遷」, 『한국고고학보』 17·18.
- 전일권, 1999, 「소정리유적 2지점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9-3.
- 정성희, 1994, 「암사동 주거지에 대하여」, 『마을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 조형래, 1996, 「수혈주거의 벽과 벽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현병, 2003, 「강원지방의 선사시대 주거구조에 대한 고찰」,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제50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지화산, 2001, 「남양리유적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01-4.
- 지화산·리명철, 2008, 「리천리유적 제1지구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08-2.
- 지화산·리명철, 2009, 「리천리유적 제1지구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09-1.
- 최종혁, 2013, 「신석기시대 남부내륙지역 취락 연구」, 『남강유역 선사·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 유적』, 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 秋淵植, 1994, 「聚落考古學의 世界的 研究傾向」, 『마을의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 하인수, 2001, 「동삼동패총 1호 주거지 출토 식물유체」, 『제4회 한일신석기문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하인수, 2006,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 5.
- 韓永熙, 1995, 「新石器時代」,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韓國考古學會.
- 한창균·신숙정·장호수, 1995, 『북한 선사 문화 연구』 (백산자료원).
- 홍성수, 2012,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집터의 변화 양상」,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기덕, 1984, 「살림집의 구조형식과 건축기술」, 『조선 원시 및 고대사회의 기술발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적 발굴(약)보고서는 지면상 관계상 생략함.

【Abstract】

Review of Research on the Dwelling Sites and Villages of the Neolithic Age in Korea

Koo Ja Jin

The research on the dwelling sites of the Neolithic Ag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first carried out in Gungsan Village, Oncheon-gun, Pyeongannam-do, North Korea in 1950. This paper divided the relevant research period into three sections: initial period (the country's liberation in 1945 - 1974), invigoration period (1975-1990), and research themes diversification period (1991-present) based on the excavation of (or reports on) major dwelling sites and the changes in themes of the relevant research. Pertinent materials were accumulated, even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they were mostly results of brief surveys or research made individually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initial period, an introduction to the relevant sites and the researchers' brief comments constituted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activities. The research then focused on the dating of specific periods of the Neolithic Age until the 1990s. Results of the relevant research made in the two Koreas have shown a clear difference since the 1970s.

The research on the dwelling sites of the Neolithic Age came to be carried out earnestly in the mid-1970s and thereafter. Initially, researchers focused on the reviews of the dwelling site structures and the restoration of the dugouts. In the 1990s and thereafter, more surveys were made on the dwelling and village sites of the Neolithic Age, and this led to research and analysis in diverse subjects. In the 2000s and thereafter, the research has been focusing on villages rather than individual dwelling sites after the discovery of large-sized village sites from the Neolithic Age. The continued research has been yielding progress on the dwelling types of the Neolithic Age and how the inhabitants made a living.

Only recently has the research on the dwelling sites and villages of the Neolithic Age gained strong momentum. Reports on key dwelling sites located in Amsa-dong in Seoul, Songjuk-ri in Gimcheon and Sangchon-ri in Jinju were published. Intensive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village sites of the Neolithic Age over the past few years, and their reports have recently started to be published. Simultaneously, analysis of the diverse aspects related to the dwelling sites is being made, making it possible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livelihood-related economy of the said Age from diverse perspectives.

Key words : dwelling sites, villages, restoration of dugouts, livelihood/dwelling types,
Neolithic Age